



### 새싹불자 안 기르면 미래 없다

고기를 먹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치어를 대량으로 양식하여 잡아먹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자란 물고기를 찾아서 건져 올리는 방법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효율적인 방법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부화하는 전자의 방법은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양의 고기를 계속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후자는 현재 있는 고기를 다 잡아 먹은 후에는 더 이상 고기 맛을 볼 수 없게 된다.

년용 불교의식집이나 경전도 한글화 되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사찰의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과 운영이 선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중앙기적적인 포교방안 마련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청년회·신도회와의 네트워크 연결도 고려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청소년 실행활동은 시기적으로 단절되어 연계성이 없고, 또 학생시절에 실행활동을 한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불교 관계기관에 취업할 때 아무런 우대를 받지 못했다. 즉, 실행에 인과가 없었다. 이것은 불교 인구를 격감시키는 간접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독교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교회'가 죽어 가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행정사무관 등이 턱없이 부족해 이웃종교가 받는 지원의 백분지 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밀빠진 독' 인식 빨리 버리고 찾아가는 포교와 투자 서둘러

어린이·청소년 불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밀빠진 독'에 비유하고 홀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만 제대로 된다면 성인 포교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어린이·청소년 불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밀빠진 독'에 비유하고 홀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만 제대로 된다면 성인 포교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어린이·청소년 불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밀빠진 독'에 비유하고 홀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만 제대로 된다면 성인 포교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노력 없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김형중(연교교보사단장·문학박사)

## 문화재청 차관급청으로 승격 몸 커졌으니 일 더 많이...

### 학예직 늘려 전문성 강화... 예산확대도 "불교문화재 보존 위한 적극적 정책 기대"

문화재청이 1급청에서 차관급청으로 승격됐다.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으로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교문화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사찰 내 보수 공사를 할 경우, 현재 매장·건조물·동산 문화재로 구분된 문화재청 조직이 부분적으로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지난 3일 "진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주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과 함께 "불교계 또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문화재청이 관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에 따라 △관공 기관과의 협력 기능 강화 △행정 조직 확대·개편 △문화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크게 3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업무와 관련해 시·도 지사를 지휘·감독하고, 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상급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가 빈번한

자리. 그러나 1급 청장의 위상으로는 상급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하나의 기대 효과는 행정조직의 확대·개편이다. 문화재청은 1급청 승격(1999년), 2과 증설(2002년), 1국 3과 증설(2003년) 등이 이어진 결과 3국 12과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만으로는 1만여 건 수십만 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만 관리하기도 버거운데, 5만여 건의 불교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를 총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관리 총괄 기관'이라는 문화재청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조직 체계의 확대·개편과 함께 학예직 증설 등 문화재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의 인적 구성이 행정직 중심이어서 집행기능 위주로 조직이 운영돼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번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강화할 교두보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겉껍데기만 차관청'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라고 충고한다. 차관청 승격에 따른 인력 확보, 기구 확충, 고급 정책 생산,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처음 시도되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초청 교구본말사 주지사님 및 실행단체장 간담회에서 건의와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뤄졌다. 3월 2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열린 간담회.

### 불교교리·역사 교재 발간

#### 조계종포교원, 신도교육용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신도전문교육 필수과목인 불교교리와 불교역사의 교재를 최근 발간했다. <불교의 이해와 실행>은 기존 <불교교리>의 전면 개정판이고, <불교역사>는 3년여의 연구 끝에 처음 내놓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교육 체계화와 내실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불교의 이해와 실행>은 각 장별로 교육목표와 실행활동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교리 공부 따

로, 실행 따로'를 지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불교역사>는 선사상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포함한 불교 역사는 물론 동남아시아, 일본, 서양 현대 불교의 흐름까지 담았다. 도영 스님은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적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무엇보다 교재가 실행을 북돋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불교문화>도 올해 안에 집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문화재·복지 관련업무 '관심사'

### 법장스님, 동화사·해인사서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총무부장 성관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3월 2, 4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와 제12교구본사 해인사에서 본·말사 순회 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교구 본·말사 순회 간담회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본·말사 현안을 파악하고 중점 정책 과제 공유를 위해 도입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건의와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일 대구 동화사 간담회에서는 △개발제연구역 내 전통사찰 경내지 건축행위 규제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중점적 대책 수립 △종단 차원의 병원 건립 △체계화된 교육을 위한 강원 통폐합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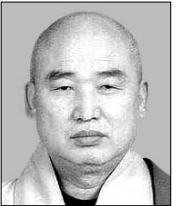
4일 합천 해인사 간담회에서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하고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 추진하는 타 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 △1교구 1복지법인 설립 △문중제도 폐지 등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다. 법장 스님은 9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를 방문한 뒤 제162회 중앙총회가 끝난 뒤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합천=배지선 기자**

#### 월정사 총무원장에 정광스님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직선직 중앙총회의원 보결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정광 스님이 3월 2일 당선됐다. 정광 스님은 1979년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85년 자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삼척 영은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정선 정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 강화보문사 주지에 혜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월 26일 혜장 스님을 강화보문사 주지에 새로 임명하고 "보문사 운영 및 발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혜장 스님은 1967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같은 해 4월 자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요리강령 및 구실선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상표 등록

#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서 안전장치를 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사용량 (kWh)	요금 (원)	사용량 (kWh)	요금 (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1,720
110	7,690	320	43,640
120	8,590	330	45,540
130	9,490	340	47,440
140	10,390	350	49,340
150	11,290	360	51,240
160	12,190	370	53,140
170	13,090	380	55,040
180	13,990	390	56,940
190	14,890	400	58,840
200	15,790	410	60,740
210	16,690	420	62,640
220	17,590	430	64,540
230	18,490	440	66,440
240	19,390	450	68,340
250	20,290	460	70,240
		470	72,140
		480	74,040
		490	75,940
		500	77,840
		510	79,740
		520	81,640
		530	83,540
		540	85,440
		550	87,340
		560	89,240
		570	91,140
		580	93,040
		590	94,940
		600	96,840
		610	98,740
		620	100,640
		630	102,540
		640	104,440
		650	106,340
		660	108,240
		670	110,140
		680	112,040
		690	113,940
		700	115,840
		710	117,740
		720	119,640
		730	121,540
		740	123,440
		750	125,340
		760	127,240
		770	129,140
		780	131,040
		790	132,940
		800	134,840
		810	136,740
		820	138,640
		830	140,540
		840	142,440
		850	144,340
		860	146,240
		870	148,140
		880	150,040
		890	151,940
		900	153,840
		910	155,740
		920	157,640
		930	159,540
		940	161,440
		950	163,340
		960	165,240
		970	167,140
		980	169,040
		990	170,940
		1000	172,840
		1010	174,740
		1020	176,640
		1030	178,540
		1040	180,440
		1050	182,340
		1060	184,240
		1070	186,140
		1080	188,040
		1090	189,940
		1100	191,840
		1110	193,740
		1120	195,640
		1130	197,540
		1140	199,440
		1150	201,340
		1160	203,240
		1170	205,140
		1180	207,040
		1190	208,940
		1200	210,840
		1210	212,740
		1220	214,640
		1230	216,540
		1240	218,440
		1250	220,34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전화 031-791-8871 792-8867~8